

복식미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 제안

- 복식 비평 모델을 중심으로 -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Aesthetic Research on Dress

- Focused on a Model for Dress Criticism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 사 이 예 영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Lecturer : Yhe-Young Lee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복식 비평 모델의 구성

I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A criticism model for dress was developed to offer a methodological insight into research on aesthetics of dress. Concepts from Edmund B. Feldman's art criticism model, James D. Carney's style-relative model of art criticism, and Sung Bok Kim's fashion criticism model were borrowed and integrated to create a criticism model for dress, comprising identification of styles, descriptive features, aesthetic value features, external interpretation, socio-cultural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Both inductive and deductive approaches for the identification of styles can be made in the process of dress criticism. In the former case, descriptive features and aesthetic features are sequentially identified to locate the styles of dress. In the latter case, styles are identified first, and descriptive features and aesthetic features are identified accordingly. Logical criticisms can be made based on the critics' background knowledge of the history of dress and art.

주제어(Key Words): 미학(aesthetics), 복식(dress), 비평(criticism)

I. 서론

1. 연구 목적

미학(aesthetics)이란 말 그대로 '미(美)'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술을 그 중심 대상으로 한다. Aesthetics란 단어는 18세기 중엽 Baumgarten에 의해 만들어진 라틴어 'Aethetica'에서 온 것으로 '감성적'이란 뜻을 담고 있다. 즉, 미학은 '미'나 '예술'과 관련된 감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미'란 '광의(廣義)의 미'로 조화와 원리에 의해 쾌감을 가져오는 좁은 의미의 미 외에,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숭고, 비장, 골계, 유머, 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손근, 1995: 10-50). 따라서, 복식미학이란 미적 대상으로서 또는 예술로서의 복식과 관련된 감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복식 창조자와 관조자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복식미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김민자, 2004: 20-22).

이러한 복식미학의 연구 방법과 관련해 Kim(1997)은 패션이 예술로서 미적 비평의 대상임을 확인한 후, 예술 비평 이론인 '양식 관련 예술 비평 모델(The style-relative model of art criticism)'을 바탕으로 양식 도출, 형태적 특성 묘사, 가치 특성 묘사, 형태적 해석, 사회·문화적 해석, 비판적 평가란 6단계로 구성된 패션 비평의 모델을 제시하여 복식미학 연구 방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Kim의 패션 비평 모델은 다양한 복식 비평 및 복식미 연구에 활용하기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주제의 복식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복식 비평의 모델을 제시하여 복식미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복식 비평과 복식미에 관한 학문적 연구, 즉 복식 미학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Feldman(1967: 451-456)에 의하면, 예술 비평은 크게 journalistic criticism, pedagogical criticism, scholarly criticism, popular criticism으로 나눌 수 있다. Journalistic criticism은 신문이나 잡지 독자를 위한 예술 비평으로 예술 작품에 대한 사실적 보도와 개인적 의견이 주를 이루어 논리적인 분석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Pedagogical criticism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예술 비평으로, 선생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의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예술 작품의 분석 및 해석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작품의 나아갈 방향을 잡게 된다. Scholarly criticism은 학문적 예술 비평으로 과거 또는 현재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해석과 평가의 과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popular criticism은 전문가가 아닌 대중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의 취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비

평의 종류는 미적 대상으로서 또는 예술로서의 복식에 대한 비평에도 존재한다. 이 중 scholarly criticism이 곧 학문적 입장에서의 복식미 연구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할 복식 비평 모델이 학문적 복식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신문·잡지의 비평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작품 비평에 참고한다면 단순한 현상이나 개인 감정의 기술에서 벗어난 보다 논리적이고 수준 높은 비평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종종 '모델(model)'은 '이론(theory)'이라는 단어와 혼용된다. 이론이란 인간의 주변 현상이나 사건에 있어서 존재하는 규칙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다 (Dubin, 1978: 5-7). 반면 모델은 주변 현상이나 사건의 규칙에 대한 가정으로 이론 도출의 기반이 된다 (Nagasawa, Hutton & Kaiser, 1991). Bubolz(1991)는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제시했다: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정의하여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 다른 분야나 맥락에 존재하는 개념과 이론을 빌려와 해당 분야에 맞게 조절하는 차용(borrowing), 기존 이론에 존재하는 개념이나 정의를 새로운 이론에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통합(integrating), 좀 더 포괄적인 상위 이론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일반화된 개념과 관계를 도출하는 방법,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도출하는 기초 이론 방법론(grounded theory methodology), 마지막으로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찰, 청취, 숙고, 분석의 과정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차용'과 '통합'의 방법을 참고하여 새로운 복식 비평의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복식 비평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Feldman(1967: 468-498)이 제시한 예술 비평 과정과 Carney(1994)의 양식 관련 예술 비평 모델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Kim(1997)의 패션 비평 모델을 살펴보고 하겠다. 이들 모델을 기반으로, 패션 디자인 및 복식 미학 관련 기존 개념들을 통합하여 복식미 연구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지닌 복식 비평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3. 용어 정의

기존 예술 및 패션 비평 모델을 살펴보기에 앞서 논문 전개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내리하고자 한다:

이론: 인간의 주변 현상이나 사건에 있어서 존재하는 규칙에 대한 논리적 설명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인 메타이론(metatheory)과 이에 비해 좀더 한정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단위 이론(unit theory)으로 나눌 수 있다. 메타이론은 [연구] 방향적 전략(orienting strategy), 패러다임(paradigm), 이론적 관점(theoretical perspective)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연구 방법과 해석 방향을 결정한다. 이론, 특히 단위 이론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사회적 현상의 변화 및 생성과 함께 새로운 경험적 지식의 습득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Dubin, 1978: 5-7; Wagner, 1984: 25-35; Bubolz, 1991; Nagasawa et al., 1991).

모델: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모델이란 주변 현상이나 사건의 규칙에 대한 가정으로 이론 도출의 기반이 된다. 즉, 모델은 사회 현상에 존재 가능한 법칙일 뿐, 실제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인 이론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Nagasawa, Hutton & Kaiser, 1991).

패션: Kaiser(1997: 4)는 패션을 '과정'과 '대상'으로 설명하였는데, 과정으로서의 패션은 새롭게 창조되어 대중에게 소개된 후 널리 받아들여지는 역동적인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고 (Sproules, 1979: 5), 대상으로서의 패션은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Kefgen & Touchie-Specht, 1986).

복식: 영어로 dress에 해당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변형은 물론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외모, 장신구, 의복 등이 모두 복식에 해당된다 (Roach-Higgins & Eicher, 1992). 따라서 대상적 개념으로서의 패션 역시 복식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김민자, 2004: 17).

복식 비평: Kim(1997: 42-44)은 예술 비평의 개념 고찰을 통해 패션 비평을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패션에 관한 논술(discourse)로, 패션 관련 대상물이나 사진을 포함하는 패션 현상에 대한 언어적 분석 또는 해석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복식 비평을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복식에 관한 논리적 기술이나 주장으로, 복식 자체나 이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언어적 분석 또는 해석이라 정의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식 비평을 보다 전문적인 비평의 개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즉, 대중 비평을 제외한 신문·잡지 비평,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평, 학문적 비평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Feldman의 예술 비평

Feldman(1967: 468-498)은 바람직한 예술 비평의 과정으로 묘사(description), 형태적 분석(formal analysis), 해석

(interpretation), 평가(evaluation 또는 judgment)의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 네 단계가 좀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각 단계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였다. Feldman이 제시한 예술 비평 과정은 구체적인 묘사에서 시작해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험적·귀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묘사'는 미적 대상인 예술 작품의 눈에 띄는 특징을 묘사 또는 기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감정, 작품에 대한 해석 및 평가 등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술만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작품에 담겨진 모습을 형태나 색상을 중심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단, 작품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기술적 분석이나 묘사는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인 '형태적 분석' 또한 묘사에 해당된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서 선, 형, 색채 등의 질에 관한 기술을 통해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작품 해석을 위한 단서를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작품의 구성 원리나 작품에 담겨진 사고를 고찰하기 위해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아 형태를 분석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해석'은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 의미가 인간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다.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평가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담고자 한 의미나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한 생각을 언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제작 의도에 대해 솔직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어떠한 주변 환경이 영향을 주었는지 미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은 비평가가 직접 찾아내야 한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비평가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단계에서 발견한 객관적 사실을 해석의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비평하고자 하는 작품과 유사성을 지닌 우수한 기존 작품과의 비교 역시 작품 해석에 타당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한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그 해석 방향이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는 작품에 상대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이미 이루어 졌다면 마지막 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앞 단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작품들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선 비평 대상과 유사성을 띤 훌륭한 기존 작품 - 과거의 작품 또는 동시대의 작품 - 을 찾고, 비평하고자 하는 작품의 제작 목적이나 기능이 비교하고자 하는 우수한 기존 작품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한 후, 비평 대

상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변화·제작되었는지를 통해 작품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독창성이다. 하지만, 독창성을 무조건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독창성 보다는, 그 독창성의 새로운 통찰력 제공 여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평가의 잣대가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예술을 *techne*라 하여 기술이라 칭했던 점을 생각하면, 예술 평가에 있어서 기술적 완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2) Carney의 양식 관련 예술 비평 모델

Carney(1994)는 Feldman의 예술 비평 모델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좀 더 세분화된 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예술 비평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예술 작품의 이해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양식(style)의 개념은 예술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는 양식을 마티스의 야수주의와 같은 특정 예술가의 개별적 양식, 야수주의나 표현주의와 같은 특정 시기의 예술 양식, 독일 표현주의와 같은 특정 지역의 예술 양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장르(초상화, 정물화, 풍경화 등)나 재료(파스텔, 수채물감, 아크릴 등)에 따라서는 양식을 구분할 수 없다 하였다. 이러한 양식의 개념을 기반으로 다음 일곱 단계로 구성된 '양식 관련 예술 비평 이론'을 제시하였다: 양식 도출(Locate the style), 묘사적 특성 및 구조(descriptive features and structures), 1차적 미적 특성(primary aesthetic features), 가치 특성(value features), 저차원적 해석(low-level interpretation), 고차원적 해석(high-level interpretation), 비판적 평가(critical judgment). Feldman의 모델과는 달리 Carney의 모델은 예술 작품의 양식을 우선 규정한 후 좀 더 구체적인 기술과 해석으로 나아가는 귀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첫 단계인 '양식 도출'은 비평 대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예술사적 맥락에서 추출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 맥락에서 작가가 영향을 받은 유파나 예술 운동을 파악하여 작품의 양식을 결정한다. 작품 자체가 기존의 어느 양식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면,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묘사적 특성 및 구조'는 눈에 띠는 색상, 모양, 배열, 감촉 등 작품의 특성과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Feldman 모델의 첫 단계인 '묘사'와 동일하다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1차적 미적 특성'의 단계로 해당 작품이 속한 양식에 대한 지식을 가진 관조자가 작품의 구성적, 표현적,

예시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인 '외적 특성과 구조'에 대한 기술도 아니고 '가치 특성'의 기술도 아니다. Carney(1994)는 회화의 장면 묘사를 예로 들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치 특성'으로 미적 가치를 지니는 특성을 형태와 내용 면에서 기술하는 단계다. 미적 가치 특성은 첫 단계에서 추출한 그 작품의 양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평가의 주관이나 취향은 작용할 수 없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저차원적 해석'이다. 작품의 가시적 특성을 기반으로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1차적 미적 특성'에서 조금 더 발전한 단계로 작품의 스타일을 파악한 사람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고차원적 해석'으로 '저차원적 해석'에 비평 대상을 만든 예술가의 전체적인 작품 성향, 예술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견해, 문화적·역사적인 맥락 안에서의 해당 작품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는 단계다. 여기서는 작품과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변화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일곱 번째 단계는 '비판적 평가'의 단계로 해당 작품의 미적 가치를 최종 평가한다. 작품 자체의 미적 가치 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고, 다른 작품과 비교해 우위를 평가할 수도 있다.

3) Kim의 패션 비평 모델

Kim(1997)은 패션 비평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 잡지인 *Artforum*, *Art in America*, *Artnews*, *Art Magazine*에서 1974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판된 32편의 패션 관련 글들을 수집하여 '양식 관련 예술 비평 모델'의 일곱 단계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arney의 모델에서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1차적 미적 특성'은 대부분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Kim은 양식 도출, 형태적 특성 묘사, 가치 특성 묘사, 형태적 해석, 사회·문화적 해석, 비판적 평가의 여섯 단계로 구성된 패션 비평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양식 도출'은 대상으로서의 패션이나 패션 관련 이벤트의 양식을 패션사 및 예술사적 측면에서 확인하는 단계다. 양식은 Carney의 모델에서와 같이 한 예술가나 패션디자이너의 개별적 양식, 시대, 장소, 유파 등에 의해 구분되는 양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 단계인 '형태적 특성 묘사'는 Carney의 모델에서 두 번째 단계인 '묘사적 특성 및 구조'와 세 번째 단계인 '1차적 미적 특성'을 통합한 단계다. 패션은 다른 시각 예술에 비해 구상적, 표현적, 예시적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판단하여 세 번째 단계를 두 번째 단계와 통합하였다. 이 단계에

서는 앞의 단계에서 확인한 비평 대상의 양식에 따라 형태적 특성을 기술한다.

세 번째 단계인 '가치 특성 묘사'는 형태적 특성에서 더 나아가 패션 대상물과 이벤트의 가치적 특성을 기술하는 단계다. 작품의 가치적 특성 역시 첫 단계에서 확인한 양식에 따라 결정된다.

네 번째 단계인 '형태적 해석'은 Carney 모델의 '저차원적 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차원적'이란 단어를 '형태적'으로 대치하여 이 단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여기서는 앞의 세 단계에서 확인한 스타일과 특성을 바탕으로 형태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단계다.

다섯 번째 단계인 '사회·문화적 해석' 역시 Carney 모델의 '고차원적 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사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패션 대상물이나 이벤트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다. 이 단계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는 '비판적 평가'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양식에 따른 특성과 해석에 기반해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Kim(1997: 180)은 좀더 발전된 패션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서 최종 평가는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III. 복식 비평 모델의 구성

1. 복식 비평 모델의 구성을 위한 제안

Kim의 패션 비평 모델은 복식 비평 및 복식미 연구에 폭넓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다 유용한 복식 비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 한계점들을 논함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인 복식 비평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Kim의 패션 비평 모델은 연구 대상의 양식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특성들을 짚어가는 연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비평 방법은, 예를 들어, 빅토리아풍의 패션, 에스닉 스타일, 오리엔탈룩 등의 양식을 위주로 복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석하고자 하는 비평에는 적용 가능하다. 반면, 연역적 비평 방법은 비평 대상이 다양한 양식과의 관련성을 지닐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양한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구성된 특정 시즌의 패션 컬렉션을 살펴본다거나 한 디자이너의 여러 작품을 살펴보는 경우가 그 예다. 이러한 경우에는 Feldman이 제시한 예술 비평 모델과 같이 구체적인 특성에서 출발해 기존 양식과의 비교 해석 및 평가로 이어지는 귀납적 모델의 활용이 적합하다 볼 수 있다. Feldman의 모델을 적용할 경우 한 컬렉

션이나 디자이너의 여러 작품에 대한 한 가지 이상 양식과의 비교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Kim의 모델에 있어서 또 다른 제한점은 양식의 개념에 있다. Kim은 Carney의 양식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양식을 한 패션 디자이너나 예술가의 개별적 양식, 특정 지역이나 시대, 유파에 따른 양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패션이나 복식을 논할 때 여타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은 그것이 인체에 입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같은 복식이라도 디자이너 외에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양식은 복식 디자이너, 복식 착용자, 예술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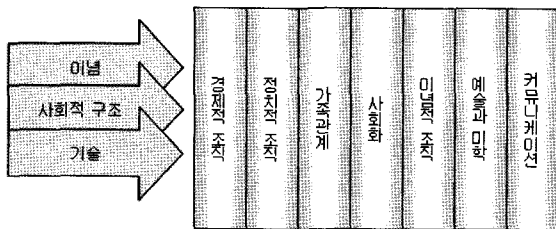
또한 Kim은 '묘사적 특성 및 구조'와 '차적 미적 특성'을 통합하여 두 번째 비평 단계의 이름을 '형태적 특성 묘사'라 하였다. 여기서 '형태적'이란 단어를 넣음으로써 비평 대상의 시각적 특성 외에 다른 특성들의 열거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었다. 즉,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성 외에 복식과 관련된 청각, 후각, 촉각적 특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복식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의 고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자는 '묘사적 특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Kim의 모델은 예술 비평 모델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패션 비평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묘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에는 Fiore와 Kimle(1997: 119-225)이 제시한 복식 디자인 요소의 개념이 유용하다. 그는 복식 디자인 요소를 크게 시각적 요소, 시각적·촉각적 요소, 청각적·후각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 디자인 요소들은 복식, 몸,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시각적 요소에는 색, 빛, 선, 형이 있는데, 색과 빛은 불가분의 관계로 빛의 경우 그것이 주는 물리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가 모두 중요하다. 선은 크게 실재선과 암시적 선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실재선에는 소재 표면의 프린트나 조직에 나타나는 선, 의복의 면과 면이 만나 형성된 봉제선, 접어서 형성된 선 등이 있고, 암시적 선에는 한 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린 단추 등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선이 있다. 형에는 몸의 형, 옷을 입는 방법에 의해 형성된 형, 옷 자체의 내부형, 소재의 무늬에 나타나는 형 등이 있다. 시각과 촉감이 함께 작용하는 디자인 요소로는 재질감, 공간, 운동 감각성(kinesthetics)을 들고 있는데, 재질감은 원사, 직물의 조직, 후처리, 소재의 표면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 공간과 운동 감각성은 인체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 요소들로 공간의 경우 복식의 형이나 선과 바탕과의 관계, 몸과 의복 사이의 사이즈(size)나 형태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운동 감각성은 몸의 움직임에 따른 복식의 미

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각적 요소는 복식을 입고 벗을 때나 복식을 착용한 채 몸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하고, 후각적 요소는 복식과 관련된 다양한 향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식 디자인 요소들을 위주로 묘사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보다 체계적인 복식 비평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단, 여기에 제시한 복식 디자인 요소는 묘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침일 뿐, 복식 비평에 항상 모든 디자인 요소를 묘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비평의 목적에 따라 관련된 복식 요소만을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복식 디자인 요소를 위주로 묘사적 특성을 열거 했다면, 이것이 미적 가치 특성의 열거를 거쳐 해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석은 단순히 형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청각, 촉각, 후각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Kim의 모델에서와 같은 '형태적 해석'이란 단계의 지칭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외부적 해석(external interpret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문화적 해석'을 위해 Hamilton(1987)이 제안한 메타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Hamilton(1987)은 체계적인 의류학 연구를 위해 '통합적인 메타이론'을 고안하였다. 그는 복식을 문화의 하위 체계로 보았고, 이에 따라 복식을 문화의 구성 요소인 이념(ideology),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 기술(technology)의 상호 작용 안에서 이해하도록 제안하였다. 여기서, '이념'이란 사회적 가치관, 규범, 지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사회적 구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직을 의미하며, '기술'이란 물질적인 것들과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러한 문화의 구성 요소는 사회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데, 이 사회적 맥락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봉착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사회적 메카니즘(mechanism)이 존재한다. 사회적 메카니즘에는 경제, 정치, 가족/친척, 사회화, 이념, 예술과 미학, 의사 전달과 관련된 체계들이 포함되는데, 이 메카니즘들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문화의 구성 요소인 이념, 사회적 구조, 기술과 얽혀 있다. 따라서 복식은 문화의 세 구성 요소와 사회적 메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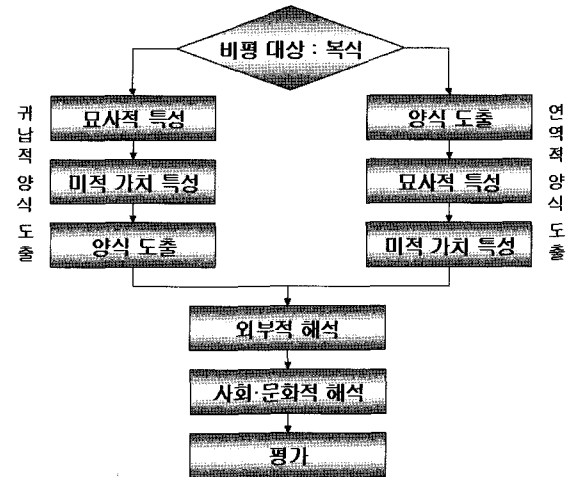


<그림 1> Jean A. Hamilton의 통합적 메타이론

의 관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통합적 메타이론은 비평 대상인 해당 복식이 지니는 의미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는데 유용한 틀로 작용할 것이다.

2. 복식 비평 모델의 구성

이제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복식 비평을 위한 방법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Kim의 패션 비평 모델은 연역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복식미의 학문적 연구를 포함한 복식 비평에서는 그 목적이나 비평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귀납적 비평 방법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역적 양식 도출 과정과 귀납적 양식 도출 과정을 조합한 복식 비평의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고안하였다. 비평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관련 양식을 우선 도출하여 그에 따른 묘사적 특성과 미적 가치 특성을 순차적으로 열거하여 해석의 단계에 이를 수도 있고, 묘사적 특성과 미적 가치 특성을 바탕으로 양식을 도출하여 해석에 이를 수도 있다. 귀납적 양식 도출 방법의 경우 하나 이상의 양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2> 복식 비평 모델

비평의 각 단계를 설명하자면, '양식 도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식 디자인이나 착용자, 예술가에 따른 개별적 양식, 시대, 지역, 유파 등에 따른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오리엔탈룩이나 에스닉룩과 같은 룩, 이콜로지풍이나 빅토리아풍 등의 풍, 1920년대 스타일이나 보헤미안스타일의 스타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묘사적 특성'의 단계에서는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성들을 열거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ore와 Kimle(1997: 119-225)의 복식디자인 요소에 비추어 색, 빛, 선, 형, 재질감, 공간, 운동 감각성, 소리, 냄새 등을 위주로

복식의 특성을 묘사한다.

복식의 '미적 가치 특성'의 단계는 묘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양식과 관련된 복식의 미적 가치 특성을 열거하는 단계이다. 귀납적 양식 도출 방법의 경우 양식 도출을 위한 도입단계라 할 수 있다.

'외부적 해석'의 단계에서는 도출한 양식과 관련된 묘사적 특성과 미적 가치 특성을 바탕으로 비평 대상에 대한 일차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를 거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평 대상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Hamilton(1987)이 통합적인 메타이론에서 제시한 문화의 구성 요소와 사회적 메카니즘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복식 창조자나 착용자의 견해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복식 비평 전반에 걸쳐 비평가의 복식사 및 예술사적 배경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특히 해석의 단계에서 비평가의 사전 지식이 해석의 수준은 물론 비평 자체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비평 대상은 '평가' 하게 된다. 대상 자체의 우수성 여부나 다른 대상과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Feldman(1967:468-498)이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외부적, 사회·문화적 의미의 해석이 있었다면 최종 평가는 생략할 수도 있다.

IV.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은 체계적인 복식미 연구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술 비평 및 패션 비평 모델의 고찰을 통해 새로운 복식 비평 모델을 고안하였다. 새로운 복식 비평 모델의 구성을 위해서 기존 비평 모델의 내용을 빌려오거나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복식 비평 각 단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복식 관련 기존 연구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양식 도출에 있어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조합한 복식 비평 모델이 탄생하였다. 이 모델은 비평가의 복식사 및 예술사적 지식을 전제로 구성된 것으로, 비평가의 사전 지식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해석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외부적 해석의 경우 도출된 스타일과 관련된 묘사적 특성과 미적 가치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문화적 해석은 말 그대로 외부적 해석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를 비평 대상에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학술적 복식미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의 미적 가치를 해석하는 작업에 치중하고, 최종적인 평가는 대체로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복식 비평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이론이나 모델도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사회적 변화나 새로운 발견에 의한 개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복식 비평 모델은 다양한 복식 비평 및 복식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가 복식 미학 연구는 물론 복식과 관련된 신문·잡지 비평과 교육적 비평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강손근(역)(1995). 미와 예술의 논리. 木幡順三의 美と 藝術의 論理. 서울: 집문당.
- 김민자(2004). 복식미학 강의1. 서울: 교문사.
- Bulbolz, M. M. (1991).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Home Economics. *Themis: Journal of Theory in Home Economics*, 1(1), 1-14.
- Carney, J. D. (1994). A historical theory of art criticism.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8(1), 13-29.
- Dubin, R. (1978). *Theory building* (rev. ed.). New York: Free Press.
- Feldman, E. B. (1967). *Art as image and ide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Fiore, A. M., & Kimle, P. A. (1997).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 design professional*.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Hamilton, J. A. (1987).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1), 1-7.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Kefgen, M., & Tou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ew York: Macmillan.
- Kim, S. (1997). *Fashion as a domain of aesthetic inquiry: A postmodern assessment of critical writings on fashion in America between 1980 and 1995*.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 Nagasawa, R. H., Hutton, S. S., & Kaiser, S. B. (1991). A paradigm for the study of the social meanings of clothes: Complementarity of social-psychological theor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53-62.

Roach-Higgins, N. E., & Eicher, J. B. (1992).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4), 1-8.

Sproles, G. B. (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Burgess.

Wagner, D. G. (1984). *The growth of sociological theories*. Beverly Hills: Sage.

(2006년 7월 30일 접수, 2006년 10월 12일 채택)